

「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」 진행

1. 개 요

- 최근 북한은 [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]를 개최하여 지난해 경제 계획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금년도 공동시설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각 부문별 과업을 제시(2.6, 민주조선)한데 이어
- 평양시를 비롯한 각 시·도 인민위원회에서 [선군혁명총진군대회] (2.2) 호소문 과업관철을 위한 군중대회를 개최, 당창건·광복 60돌을 빛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일 것을 촉구하고 있음.

2. 분석 평가

- 북한의 [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]는
 - 북한 헌법 제122조에 따라 행정·경제사업 관련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수시(주로 분기 1회)로 소집하는 회의로서
 - 통상 총리·부총리·내각의 상급이 참석하고 각 도 인민위원장, 중요 공장·기업소 간부등이 방청하는 가운데 중요한 사업을 토의·결정하고 있음('04년 5회 개최)

<'04년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현황>

개최시기	주요내용
'04. 1 월	신년과업 관철 결의
'04. 3 월	예산집행 대책토의
'04. 7 월	상반기 경제계획 결산
'04. 10월	3/4분기 경제계획 수행실적 및 4/4분기 대책
'04. 12월	금년도 농산물 생산실적 및 내년도 증산계획

- 이번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는 공동시설 관철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후속 '내각 결의모임'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
 - 지난해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부문별 당면목표 추진과 관련 구체적 세부 실천 대책을 논의하면서
 - 올해 주공전선인 농업부문 및 전력·금속공업, 철도운수 등 선행부문에 대한 연내 과업 달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.

< 올해 제시된 부문별 세부 추진과업 내용 >

주요 부문	세부 과업내용
농업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 (종자혁명, 두벌농사, 감자농사혁명, 콩농사에 대한 방침) · 지력향상 및 관개·배수시설 정비 · 백마-철산 물길공사 완공 / 닭공장·오리공장 현대화 · 비료·농약 영농물자의 제때 보장
전력공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화력·수력발전소의 설비 및 수력구조물 보수
석탄공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일 석탄생산목표 제시
금속공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산광산연합기업소, 황해제철연합기업소,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의 과업 제시
철도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관차, 화차수리고 가동률 증대 · 수송조직과 지휘 개선, 화물수송목표 제시
기타 기간공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치밀한 생산조직과 지휘로 생산 정상화

- 이같은 동향은 7.1조치 이후 내각의 경제관리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,

※ "내각에서는 경제상황들에서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올해에 경제 작전과 지휘를 바로 해 나갈 것"('03.3.26, 최고인민회의)

- 금년도가 당창건·광복 60주년임을 의식, 식량·에너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경제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도로 보임.